

■ 논문 ■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

이 용 일

I. 독일 역사정치문화의 종말?

2017년 9월 24일은 독일인들에게, 적어도 독일정치 지형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날이다. 극우정당으로 분류되는 신생의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 이하 독일 대안당)이 진입장벽이었던 지지율 5%를 훌쩍 넘어 독일연방의회에 입성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독일 대안당의 약진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독일인들이 앞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들과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며 독일 대안당의 독일의회 입성을 오래전부터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독일 대안당이 2017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획득한 득표율 12,6%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독일 정치판의 양강으로 분류되는 기민연/기사연과 사민당 다음에 위치하는 일약 제 3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극우정치에 관한 한, 2017년 9월 24일은 독일의 예외주의가 무너진 날로 회자될 것이다. 전후 독일에서 무수한 극우정당들이 등장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지방의회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5%의 ‘연방의회 진입장벽’ 앞에서 모두 좌절하곤 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극우정당들이 약진할 때에도,

* 본 논문은 2016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독일은 ‘극우정치의 청정지대’라는 프로필을 지켜낼 수 있었다. 외르크 하이더(Jörg Haider)가 이끄는 자유당(FPÖ: Die Freiheitliche Partei Österreichs)이 전후 유럽 극우정당이 거두었던 역대 최대 승리를 자축하며 오스트리아 의회에 입성했던 때에도 그러했고, 펴름 포르투인(Pim Fortuyn)의 자유당(PVV: the Partij voor de Vrijheid)이 일약 제 2 당으로 도약하며 네덜란드의 ‘다문화주의의 종말’을 알렸을 때도 그러했다. 이보다 훨씬 질진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마리 르 펜과 그의 딸 마린 르 펜의 민족연합(Rassemblement National)¹⁾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에서의 극우화에도 독일 예외주의는 좀처럼 흔들림이 없었다.²⁾

이러한 독일 예외주의는 독일의 독특한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에 기인한다. 그것은 극단적 민족주의가 남긴 과거의 깊은 상흔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교육되어진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의식이다. 정치문화는 독일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며 점진적으로 발전, 변화해 왔다. 그럼에도 나치의 민족공동체와 홀로코스트로 상징되는 과거 ‘독일의 재앙’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역사의식이 늘 그러한 ‘역사정치문화’의 기저를 형성하고 있다.³⁾ 이것은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추진했던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의 방향타 노릇을 했다. ‘중부유럽’의 맹주를 꿈꾸었던 국수적 ‘게르만중심주의’를 버리고 독일, 더 정확히 서독은 ‘서구연합(Westbindung)’을 외치며 서구사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 독일사회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어내었고, 한때 독일역사 속에 결여 되었다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발전시켰다. 근대화론자들의 언어를 빌자면, 독일은 비로소 ‘정상국가’가 될 수

- 1) 2018년 6월 이후 당명이 민족전선(Front National)에서 민족연합으로 바뀌었다.
- 2) Simon Bornschier, “Why a Right-Wing Populist Party Emerged in France but not in Germany: Cleavages and Actors in the Formation of a New Cultural Divid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012), pp. 121-145.
- 3) 고로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정치문화 대신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로 명명될 것이다. 이것은 학교교실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진다.

있었다.⁴⁾ 하지만 이러한 정상국가로의 노력은 다른 ‘비정상’을 낳았다. 독일을 사랑하고, 독일인임을 자부하는 -여타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전한 애국주의의 발로’조차도 독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터부시되었다. 이러한 ‘히스테리적 탈민족주의’와 함께 나치과거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예민한 자기반성과 자기검열 역시 ‘비정상’으로 비춰졌다. 적어도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그러했다. 탈민족주의를 표방했던 사회에서 독일인들은 자부심과 정체성의 근원을 비약적인 경제발전, 잘 발달한 민주주의 제도, 경제공동체 내지 평화공동체로서의 유럽, 목가적인 로컬 공간 등에서 찾았다. 특별히 유럽은 새로운 정체성의 발로가 되었다. 전후 독일 외교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서구로의 접근’과 ‘신동방정책’은 유럽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공간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것은 과거사청산을 통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회복이 전제되어야 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많은 이견들과 격렬한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이러한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는 독일정치시스템 속에 뿌리내리며 수용되어져 왔다. 독일 대안당은 이러한 역사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그것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걸어왔던 근대화 길 자체에 대한 반동을 의미한다. 독일 대안당은 이전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권위적 체제로의 복귀를 꿈꾸었다. 피와 땅에 기반 한 민족과 하이마트라는 오래된 개념은 다시금 극우정치의 핵심어가 되었다. 대안당의 성공은 심화하는 세계화 과정 속에 급속하게 일어난 트랜스내셔널 전환기의 혼돈과 불안의 결과물이다. 더 정확히 그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기성정치의 무능함과 불특정 다수의 실망과 분노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 변화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두 차례 ‘유럽위기’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II. 위기의 정당: 반유로와 반난민

4) 특별한 길에서 정상의 길로 들어섰다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근대화 내지 서구화는 오랫동안 독일주류 역사학의 시각으로 자리매김했었다. 물론 근대화이론과 ‘특별한 길 테제’의 쇠퇴와 함께 이 시각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Philipp Gassert, “Die Bundesrepublik, Europa und der Westen. Verwerstlichung, Demokratisierung und einigen komparatischen Defiziten der zeithistorischen Forschung,” Jörg Baberowski/Eckart Conze/Philipp Gassert/Martin Sabrow ed., *Geschoichte ist immer Gegenwart. Vier Thesen zur Zeitgeschichte*(München, 2001), p. 68.

2008년과 2015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유럽 위기’는 독일 대안당의 출범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럽 금융위기로 인해 정치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던 독일의 대안당은 유럽난민위기를 발판으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독일의 대안당은 독일 연방의회 선거 7개월 전인 2013년 3월에 창당되었다. 자유보수주의자들과 민족보수주의자들이 창당의 주역들이었는데, 그들의 공통분모는 ‘반유럽’과 자민족중심주의였다. 물론 창당초기 단일이슈정당으로 불릴 만큼 반유럽통합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자유보수주의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제국과 바이마르 공화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뿌리를 가진 자유보수주의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기민/기사연 내부에 경제적 자유주의 진영과 자유민주당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실 자유보수주의 주류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들로서 유럽통합을 지지했지만, 유럽통합회의론자들 역시 존재했었다. 마스트리트 조약 체결 이후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뉴라이트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가 유럽에 형성되었는데, 이 네트워크는 이후 독일 대안당 결성 과정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특별히 영국의 토리당 유럽회의론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독일 ‘반유럽 운동가들’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2005년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를 통해 좌초되었던 사건 역시도 독일 반유럽주의자들의 정치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2008년 유럽 금융위기에 대한 독일 제도정치권의 대응이었다.⁵⁾

독일 대안당은 창당 발기문에서 유럽금융위기에 대한 독일정부의 ‘긴급수혈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다. 유로존은 부적절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경쟁압력 속에서 가난해졌다. 전체 국가들은 지불불능 상태의 경계에 놓여있다. 수백만 유로가 연방정부에 의해 저당 잡혔다. 이러한 정책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과도하고 무책임한

5) Dieter Plehw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Europäische und transatlantische Dimensionen des neuen Rechtsliberalismus”, Alexander Häusler ed., *Di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Programmatik, Entwicklung und politische Verortung*(Wiesbaden, 2016), p. 54.

짓이다.”⁶⁾

함부르크 대학 경제학 교수였던 베른트 루케(Bernd Lucke),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과 벨트지 기자를 역임 했던 콘라트 아담(Konrad Adam), 정치인 알렉산더 가우란트(Alexander Gauland)가 창당을 주도했는데, 이들 모두는 기민연 탈당파들이었다. 특별히 루케는 초기 대안당의 브레인이자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맡았다. 그는 베를린에서 열린 창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중도정당을 표방하며, ‘반유로정책’을 당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했다⁷⁾: “우리는 여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중도정당이 탄생하는 순간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로위기 속에서 기성정당들은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다른 정치적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단일이슈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유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한 독일정부와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면, 독일에 경제적 이성과 사회적 책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다른 주제들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하나의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려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정당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회적 중도 정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⁸⁾

비록 단일이슈정당이 아니라고 했지만, ‘유럽회의주의’라는 당의

6) 2012년 9월 이들에 의해 발족했던 선거대안 2013(Wahlalternative 2013)이 독일 대안당의 모태가 되었다: Günther Lachmann, “Anti-Euro-Partei geißelt die Politik der Kanzlerin”, *Die Welt*(2013.3.3.).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14091447/Anti-Euro-Partei-geisselt-die-Politik-der-Kanzlerin.html>

7) 2013년 4월 14일 열린 이 창당대회에서 루케는 3명의 당대표 가운데 최다 득표자로 선출되었다. 베른트 루케 96%,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 81%, 콘라트 아담 80%.

8) Rede von Prof. Dr. Bernd Lucke auf dem Gründungsparteitag in Berlin(2013.4.14.).

<https://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wp-content/uploads/2013/04/Rede-Bernd-Lucke.pdf>

정체성과 체계적인 반유럽 캠페인은 짧은 시간 안에 당이 성장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013년 창당할 때 유럽금융위기 상황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많은 유권자들의 의식 속에 여전히 ‘퍼주기식 구제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들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성정당들은 유럽연합체제의 유지를 원했기 때문에 유로정책에 반하는 체계적인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독일 대안당은 이러한 기성정당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갔다.⁹⁾

2013년 9월 22일 치러진 독일연방의회 선거에서 대안당은 의회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짧았던 준비기간을 감안한다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4.7%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대안당의 지도층에 기민연 출신들이 많이 포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유당 지지자들의 표가 상당부분 독일 대안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선거분석이 나오기도 했다.¹⁰⁾ 실제 기민연과의 연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진출에 실패하는 ‘충격적 재앙’을 겪었다. 처음부터 대안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당의 반유럽적 정서와 정책에 매혹되었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적지 않은 유권자들은 대안당이 감정적으로 고조시켰던 위기시나리오, 특별히 이민과 관련된 위기시나리오와 강력한 반이민정책 때문에 막판에 대안당으로 돌아섰다.¹¹⁾

창당 초기부터 ‘반이민’은 ‘반유럽’과 함께 당의 핵심 아젠다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자유보수주의자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민족보수주의자들에게 반이민 캠페인은 당 안팎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민족보수주의자들 안에도 온건보수파와 극우세력으로 갈라져 있었다. 침묵하는 ‘중간지대’의 다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대안당은 처음부터 기성정치에 실망한 다양한 정치노선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성 정치문화와 정치시스템에

9) Rüdiger Schmitt-Beck, “Euro-Kritik, Wirtschaftspessimismus und Einwanderungskepsis: Hintergründe des Beinah-Wahlerfolges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bei der Bundestagswahl 2013”,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2014), p. 96.

10) *Ibid.*, p. 99.

11) *Ibid.*, p. 112.

대한 극단적 거부, 개인적 성취와 시장경제의 수호, 최소한의 국가역할,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개인적, 사회적 평등에 대한 강한 거부. 주변화 된 집단의 사회통합에 대한 거부,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반이슬람주의, 외국인혐오와 인종주의 등의 특징들이 하나의 ‘신당’ 안에 다 들어 있었다.¹²⁾ 이 당을 어떠한 이념적 스펙트럼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였다. 당내 노선갈등과 노선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처음 당권을 잡았던 루케를 위시한 당내 경제자유주의 신봉자들은 가능한 한 당의 극우화를 막으려 했다: “우리 당은 외국인혐오를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외국인을 혐오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¹³⁾

루케를 중심으로 치러졌던 2014년 유럽의회선거에서 독일 대안당은 7,1%라는 지지율을 획득하며 독일에 배분된 96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치러진 작센, 튀링엔, 브란덴부르크 지방선거에서도 독일 대안당은 각각 9,7%, 10,6%, 12,2%의 높은 지지율을 받으며 성공을 이어나갔다. 지방선거의 승리로 극우성향의 지역당위원장들이 속속 지방의회에 진출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면서 당의 우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당의 우경화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과 같은 에어푸르트 선언(Erfurter Resolution)이 나온 것이 2015년 3월이었다: “독일을 위한 대안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작년에 우리는 빛나는 정치적 성공을 이루어 내었지만, 신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문제제기를 너무 쉽게 여기는 우를 범할 위기에 있다. 시민들은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다른 기성정당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더 민주적이고, 더 애국적이고, 더 용감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별 어려움 없이 기성정당 체제에 점차 순응하게 되었다: 기능주의, 뻔뻔함, 국익에 대한 배신행위.”¹⁴⁾

12) Carl C. Berling,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 Germany’s New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y”, *Ifo DICE Report* vol. 15(2017/4), p. 16.

13) Timo Stein, “Interview: Eurokritiker Lucke >>Wir lehnen Ausländer-feindlichkeit ab<<”, Cicero(2013.4.8.).

14) AfD, Erfurter Resolution. <https://www.derfuegel.de/erfurterresolution.pdf>

순옹자, 기능주의자, 배신자로 공격했던 것은 루케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에어푸르트 선언의 초안을 짜고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당내 극우민족주의 계파조직인 ‘날개(Der Flügel)’였다. 더 정확히는 -에어푸르트 선언이 “날개의 발기문(Die Gründungsurkunde des Flügels)”으로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에어푸르트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당내 극우주의 계파 ‘날개’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¹⁵⁾ 그 중심에는 튀링엔 대안당 대표 뷔요른 획케(Björn Höcke)와 작센-안할트 대안당 대표였던 안드레 포젠부르크(André Poggenburg)가 있었다. 에어푸르트 선언 이후 루케의 당내 입지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짐나지움 역사/체육교사 출신의 획케가 당의 우경화를 주도하며 당의 ‘막후 실력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에센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의 새로운 공동대표로 기존의 프라우케 페트리(Frauke Petry)와 함께 외르크 모이텐(Jörg Meuthen)이 선출되면서, 루케는 탈당계를 던졌다. 그는 진보와 재건을 위한 연합당(Allianz für Fortschritt und Aufbruch, 이후 자유보수개혁 Liberal-Konservative Reformer)으로 당명개정을 창당하고, 다시금 정치적 영향을 얻으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당내 자유보수주의의 또 다른 상징인물이었던 전 독일산업연맹회장 한스 올라프-헨켈(Hans Olaf-Henkel) 역시 루케를 따라 당을 떠나게 되는데, 이들의 탈당은 당 노선 변경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획케와 그의 극우민족주의 추종자들은 에어푸르트 선언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1. 기성정당들에 대한 근원적이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2. 지난 수십 년의 사회적 실험들, 이를테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다문화주의, 교육적 방임에 반대하는 우리 민족 운동 3. 독일의 자치와 정체성의 지속적인 공동화(空洞化)에 대항하는 저항운동 4. 실제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Mut zur Wahrheit)를 가진 당.¹⁶⁾

대안당 극우보수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와

15) *Ibid.*

16) *Ibid.*

국수주의로의 회귀이고, 독일 연방공화국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근대화 과정 자체와 그 속에서 합의되었던 공동의 가치 모두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과 성적 다양성에 대한 전면적 부정, 혼욕과 질서, 독일정체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보수적 교육으로의 복귀, ‘유로존’에 대한 강한 거부, 이민국가로서 독일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들에 대한 부정과 민족적 힘의 원천으로서 하이마트의 수호(Heimatsschutz) 등이 그것이다. 종국에 이것은 나치과거의 긍정적 소환과 계승,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기억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와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대한 파상공격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불편함과 상실감을 제대로 표현 할 수 없었던 중원의 불특정 다수의 독일민족 내지 ‘순수한 독일인들’을 대변하는 용기 있는 당이 극우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대안당의 정체성이었다.¹⁷⁾

독일 대안당의 성공스토리는 독일의 역사정치문화 속에서 터부시되었던 독일의 현실 내지 위기상황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했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적어도 이 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매몰된 기성정당의 ‘위선’에 신물을 느끼고, ‘독일현실’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해주는, 더 정확히는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해주고 대변해 줄 정치적 대안을 독일 대안당에서 찾았다. 사실 첫 번째 당노선 투쟁 이후 극우보수주의 또는 극우포퓰리즘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싶어 했던 대안당 당원들이 당을 떠났고 -대략 전체 당원의 20%가 이때 빠져 나갔다-, 상승하던 당의 인기도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유럽으로 몰려오는 엄청난 규모의 난민물결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과 ‘트랜스내셔널 유럽’에 방점을 두었던 기성정당들의 대응이 무능력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독일 대안당의 인기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독일 대안당의 성공 요인은 그 정책과 전략도, 두 차례의 걸린 유럽위기도 아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 파생된 사회적, 정치적 변혁이 의회 밖 ‘프로테스트 군소정당’에게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것이었다. 위기는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었던 이러한 변혁을 가속화시키거나 가시화시켰을 뿐이었다.

17) *Ibid.*

III. ‘민족주의적 전환기(nationale Wendezeit)’와 진실을 말할 용기(Mut zur Wahrheit)

획케와 ‘날개’ 회원들은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변혁이 그들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근본적인 정치전환(Eine politische Wende)”으로 불렀던 ‘거대한 변혁’을 그들의 당이 여전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 변혁에 대처해야 함을 호소했던 것이 에어푸르트 선언이었다. 이것은 기성정당들과 미디어, 그리고 그들이 ‘망할 놈의 사회적 실험’이라 불렀던 것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 선포였다.¹⁸⁾ 그러나 실제 이 선포는 외부로 향하기보다 내부의 적에게 향했다. 루케와 그의 추종자들이 물러난 뒤에도, 노선갈등이 당내에 끊이지 않았다. 극우민족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긴 했지만, 당의 극우화와 극우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여전히 수적으로는 우세했다. 심지어 극우주의자들 내부도 역사적 인식의 차이로 갈라져 있었다. 획케와 그의 추종자들은 에어푸르트 선언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서명한 자와 서명하지 않은 자로 편 가르기를 했다.¹⁹⁾

날개 회원들은 매년 튀링엔의 키프호이저(Kyffhäuser)에 있는 빌헬름 황제 기념비 앞에서 모임을 갖고, 세를 과시했다. 2015년 6월 모임에서 날개의 공동회장인 획케는 작금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민족주의적 전환기로 명명하며, 극우민족주의 정당이 독일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호기로 보았다. 여기서 행했던 연설에서 그는 이전 독일의 ‘이주민 논쟁’에서 자주 등장했던 익숙한 표현을 사용했다: “동지 여러분, 우리 망하지 않도록 합시다(wir lassen uns nicht abschaffen)! 우리는

18) *Ibid.*

19) 대안당 내 극우계파 ‘날개’의 홈페이지에서는 에어푸르트 선언에 대한 서명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https://www.derfuegel.de/erfurter-resolution-unterzeichnen/>

전환을 끌어내었고, 이 전환을 이루고 싶고, 이를 것입니다.”²⁰⁾ 바로 이 표현은 2010년 출간된 티로 자라친(Thilo Sarrazin)의 책 제목 『독일이 망하고 있다(Deutschland schafft sich ab)』에서 따온 것이다.²¹⁾ 계속 독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난민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우둔한 2,3세대의 증가와 독일인들의 출산을 저하로 더 이상 이전의 자랑에 마지않던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독일인들의 나라’가 망해가면서 누리고 있던 부와 풍요 역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분노가 두 표현 속에 담겨 있다. 우생학적 인용으로 인종주의 혐의를 받기까지 했던 자라친의 책은 획계와 같은 극우보수주의자들에게 다음의 2가지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첫째, 이주민과 난민, 그리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바라보는 보수민족주의적 시각이 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 구매자 모두가 이런 시각에 동의하는 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1천 5백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는 것은 독일사회 안에 반이민과 반난민 전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었다. 둘째,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의 굳건함으로 보수민족주의적 실천 역시 많은 사회적, 정치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독일사회 좌파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올바름’에 비수를 꽂았다는 자라친의 도발이 개인적 고립과 희생-출당과 파면을 초래했고, 급기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후 독일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다룬 『새로운 도덕테러. 독일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경계(Tugendterror. Über die Grenzen der Meinungsfreiheit in Deutschland.)』을 쓴 것도 그 때문이었다.²²⁾

극우보수주의자들은 기꺼이 독일의 역사정치문화라는 거인에 대항해 싸우고자 했다. 획계와 같은 권위적 혁명가(Die autoritäre Revolte)

20)DGB, *Die AfD: Auf dem Weg in einen völkisch-autoritären Populismus. Eine Zwischenbilanz vor der Bundestagswahl 2017*(Berlin, 2017), p. 13에서 재인용.

21)Thilo Sarrazin,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München, 2010).

22)Thilo Sarrazin, *Der neue Tugendterror. Über die Grenzen der Meinungsfreiheit in Deutschland*(München, 2014).

에게 자라친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 영웅이었다.²³⁾ 또한 그들은 자라친으로부터 그들의 투쟁이 승산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기성정당들은 독일의 역사적 정치문화의 울무에 갇혀 진실을 이야기할 용기도, 현실을 바꿀 능력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독일사회에 넘쳐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 울무를 깨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이익을 대변해줄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어졌다고 그들은 믿었다. 유럽난민위기를 대하는 개별 민족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대립 속에 갈팡질팡하는 독일 기성정당들의 무능력은 그 요구를 더 절실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날개의 공동회장으로 획계와 함께 당대 극우세력을 대표했던 안드레 포겐부르크 역시 일찍부터 이러한 ‘민족주의적 전환기’가 독일 대안당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믿었다: “우리는 이제 실제 의회 안에 진짜 독일 민족주의 정당을 안착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²⁴⁾

독일 대안당 내 극우보수주의자들이 기회의 실현을 위해 제시했던 해법은 아주 단순했다. 그것은 과거로의 회귀였다. 분노하고, 당황해하는 국민들에게 이전이 훨씬 나았다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독일의 부가 복지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제도화 되고 있던 그때, 남자들은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 머물던 그때, 이주민들이 여전히 손님노동자들로 불릴 그때, 그들은 언제가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했다. 때때로 극우민족주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상향으로서의 과거는 1945년 이전을 의미하기도 했다. 권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민족국가, 피와 땅에 근거한 좁고 배타적인 민족개념의 잣대 아래서 차별과 배제, 혐오와 폭력이 정당화되었던 곳, 독일연방공화국이 오래전에 떠나 왔던 그곳으로의 복귀가 그들이 제시한 해법이기도 했다. 그들은 국경폐쇄, 추방, 격리, 동화 등을 다시금 민족주의적 전환기 이주정책과 난민정책의 핵심키워드로 만들었다. 민주화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이러한 것들은 인권침해와 외국인혐오, 심한 경우 범죄유무의 논란 속에서 실행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23) Volker Weiß,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gang des Abendlands*(Stuttgart, 2017), p. 10.

24) DGB, *Die AfD: Auf dem Weg in einen völkisch-autoritären Populismus*, p. 13에서 재인용.

과거 권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기억의 장소인 빌헬름 황제의 기념비가 있는 키퍼호이저에서 대안당 극우보수주의자들이 매년 모임을 갖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획케가 독일의 기억문화를 공격했던 것도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다시금 우리 역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지게 됩니다. 프란츠 요제프 스트라우스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과제로서 과거극복이 민족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지 여러분, 프란츠 요제프 스트라우스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둔한 과거극복정책이 프란츠 요제프 스트라우스의 시절보다 오늘날 우리를 훨씬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속히 기억정치를 180도 바꾸어야 합니다.”²⁵⁾ 2017년 1월 드레스덴에서 열렸던 대안당 청년모임에서 행했던 그의 연설, 특별히 “우둔한 과거극복정책(Dämliche Bewätigungspolitik)”과 “기억정치의 180도 전환(eine erinnerungspolitische Wende um 180 Grad)”이라는 표현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기성정당의 정치인들로부터의 신랄한 비판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내부로부터의 비판은 획케에게 뼈아픈 것이었다. 당시 대안당의 공동대표였던 페트리는 획케의 도발적 연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징벌위원회에 회부시켰다. 그곳에서 그의 출당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날개 계파’는 전체 당원의 20%를 상회하는 정도였다. 획케의 연설을 계기로 당의 극우보수주의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으로 대안적 중도파(Alternative Mitte)가 결성되기도 했다. 수적 열세와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날개 계파는 당내 막강한 권력을 획득했다. 당 지도부와 불협화음을 내었던 공동대표 페트리는 당내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연방선거후 탈당해 청색당(Die blaue Partei)을 만들었다. 페트리 축출을 막후에서 조정했던 것도 날개 계파였다. 페트리의 후임으로 대안당 공동대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가우란트는 브란텐부르크 대안당 대표로 획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극우보수주의자였다. 계파 내부에서도 지속적인 권력투쟁

25)“Höcke-Rede im Wortlaut. >>Gemütszustand eines total besiehten Volkes<<”, *Der Tagesspiegel*(2017.1.17.).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hoecke-rede-im-wortlaut-gemuetszustand-eines-total-besiehten-volkes/19273518.html>

내지 노선투쟁이 감지되고 있지만, 향후 날개 계파를 중심으로 한 당의 우경화와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대한 과상공격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독일 역사학자들도 우려의 눈으로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 사실 독일의 역사정치문화에 충격을 주고 수정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다. 그럼에도 현대사가 마틴 자브로우(Martin Sabrow)는 획케의 ‘역사정치적 행보’가 앞선 시도들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앞선 시도들 대부분이 치욕스러운 나치과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비판의 초점을 나치과거에 대한 반복되는 기억과 상기에 맞추었다면, 획케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매한 태도는 역사적 과오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읽혀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획케의 드레스덴 연설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형성되었던 -자브로우의 언어를 빌자면- 역사적 계몽의 패러다임(Das Paradigma der historischen Aufklärung)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인 셈이다.²⁶⁾ 획케의 연설에서 보여지는 나치 레토릭이 독일의 다른 극우정당 독일민족민주당(NPD, Nation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획케가 드레스덴에서 논란이 되었던 연설을 했던 날은 -우연히도- 독일헌법재판소가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금지를 이유 없는 것으로 각하한 날이기도 했다. 획케의 에어푸르트 선언 역시 독일민족민주당 싱크탱크였던 위르겐 간젤(Jürgen Gansel)의 구상에서 차용되었다는 주장이다.²⁷⁾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나치과거와 그들의 사용했던 레토릭과 이미지 등이 독일 대안당의 극우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계속 소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민족주의적 전환기라는 그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나듯이, 피와 땅에 기반 한 오래된 민족(Volk)은 대안당의 연설이나 선언문에 빠지지 않는 핵심어가 된지 오래다. 나치즘연구에 오랫동안 천착한 역사가 미하엘 빌트(Michael Wild)는 독일 대안당을 민족을 로비하는 정당

26)Martin Sabrow, “Höcke und Wir”, *Zeitgeschichte-online*(2017.1).

27)Andreas Kemper, “Den >>Kampf um die Sprache gewinnen<< Zur NS-Rhetorik des AfD-Politikers Björn Höcke”, *Zeitgeschichte online*(2017.4.1.).

<https://zeitgeschichte-online.de/kommentar/den-kampf-um-die-sprache-gewinnen>

(Lobbypartei des Volkes)으로 명명하며, 대안당이 민족을 “과대포장(Mogelapckung)”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민족과 민족공동체를 소환한다면, 그것이 왜 몰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거 민족의 이름으로 나치에 의해 저질러진 많은 만행들이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했던 위험성을 그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²⁸⁾ 나치과거를 미화하고, 그것의 오래된 민족개념을 정치적으로 소환하며,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해 온 역사정치문화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려는 대안당의 극우보수화에 반기를 든 것은 비단 개별 연구자들만이 아니었다. 2018년 9월 27일 뮌스터에서 열린 역사학대회에서 독일역사가협회는 독일 대안당의 부상과 극우화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진단하고 아래와 같은 반대성명서를 발표했다.

1. 역사적으로 섬세한 언어사용을 지지하며,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사용을 반대한다.
2. 의회민주주의와 다양한 논쟁문화를 지지하며, 포퓰리즘을 반대한다.
3. 함께 행동하는 유럽을 지지하며, 민족주의적 독자행보를 반대한다.
4. 인권을 지지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5. 과거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지지하며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²⁹⁾

사실 독일 대안당의 문제가 잘못된 과거인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패러다임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읽었을지 모르지만, 독일 대안당에는 현실인식과 미래방향이 부재하거나 왜곡되었다. 현재의 문제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부재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과잉에 있다는 것이다. 심화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급속하게 진행된 ‘트랜스내셔널 현실’과 사회변혁에 어울리지 않게 현재의 제도들과 시스템, 인식과 이념은 여전히 민족과 민족국가라는 프레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유훈위기와 난민위기에서 보여 졌던 많은 갈등들과 혼란들은 여기에

28)Michael Wildt, *Volk, Volksgemeinschaft, AfD*(Hamburg,2017), p. 11.

29)Resolution des Verbandes der Historiker und Historikerinnen Deutschlands zu gegenwärtigen Gefährdungen der Demokratie(Münster, 2018.9.27).

<https://www.historikerverband.de/verband/stellungnahmen/resolution-zu-gegenwaertigen-gefaehrungen-der-demokratie.html>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의적 전환 대신 트랜스내셔널 전환을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IV. 새로운 전환의 시대와 ‘하이마트 정치’

몇몇의 통계자료만으로도 2015년 유럽난민위기가 독일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과 변화를 안겨주었는지 잘 알 수 있다. 2014년 8백 15만 명이던 외국인인구는 2016년 1천만 명 선을 돌파해 2018년 3월 현재 1천 72만 명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증가한 것으로, 대구 인구와 같은 대도시-독일에선 베를린 다음의 두 번째 큰 도시-가 독일에 하나 더 들어 선 셈이었다.³⁰⁾ 국적별로는 2018년 현재 독일 체류 난민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리아인들이 71만 명으로 1백 48만 명의 터키인들과 87만 명의 폴란드인들 다음의 3번째 큰 규모이다.³¹⁾ 2015년 한 해만도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을 수용했다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역으로 메르켈의 ‘중도정치’의 약화를 가져왔던- 유럽 난민위기에 대한 독일적 대응의 흔적이 여기 숫자들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2016년 1월 독일정부가 발표했던 2015년 유입난민 수 110만 명에 기인함이 틀림없다.³²⁾ 그러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독일로 들어온 전체 난민 수는 89만 명이었다.³³⁾ 이것 역시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2015년 난민신청자수는 48만 명에 이르렀고, 2016년은 대략 30만 명 더 늘어난 75만 명으로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2017년 난민신청자수는 22만 명으로 난민위기

30)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Nürnberg, 2018), p. 107.

31) *Ibid.*, p. 112.

32) “2015 kamen 890.000 Flüchtlinge nach Deutschland”, *Spiegel Online*(2016.09.3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luechtlinge-2015-kamen-890-000-schutzsuchende-nach-deutschland-a-1114739.html>

33)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Nürnberg, 2016), p. 2.

이전인 2014년 수준으로 떨어졌다.³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것 역시 같은 기간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탈리아 13만 명, 프랑스 10만 명, 그리스 6만 명-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2015년에서 2017까지 독일의 난민보호율은 각각 49,8%(2015), 62,4%(2016), 43,4%로 난민위기 이전과 비교해 -27,7%(2012), 24,9%(2013), 31,5%(2014)- 훨씬 더 높았다. 이러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초에 서유럽과 발칸의 28개국이 모여 난민들의 주요통로였던 발칸루트를 종식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독일 난민정책 역시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곧 유럽-터키 협정이 맺어졌고, 터키에 유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난민캠프들이 설립되면서 유입난민의 수가 급감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개방적인 난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메르켈의 장기집권에 내내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미 외국인인구가 8백만 이상인 나라의 총리 입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Wir schaffen das).”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1980년대부터 독일이 외국인수용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 언론을 통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왔는지? 귀화해서 독일인이 된 이주민과 그 2,3세 모두를 포함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의아함은 배가 된다. 2015년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은 1천 7백 11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독일인구의 21%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였다.³⁵⁾ 2017년 현재 독일의 이주배경을 가진 자들은 1천 9백 25만 명으로 전체 독일인구의 24%를 차지한다. 독일은 인구 네 명 중 한 명이 이주민인 다채로운 사회가 된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이주민인 난민을 불러들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나? 그러나 답은 의외로 간단할지 모른다. 그 답은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내수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독일의 총리는 ‘생건체제’에서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34)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p. 13.

35)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Nürnberg, 2016), pp. 160-161.

더블린 규정의 문제로 인한 유럽의 분열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난민은 처음 입국한 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이미 금융위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던 - 유럽연합의 외부국경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유럽 난민위기의 최대 피해국이 될 운명이었다. 이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였던 것도 유럽의 분열과 국경 없는 유로존의 위기를 막으려는 조치였던 것이다. 사실 독일의 기성정당들 가운데 유럽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당은 아무도 없었다. 난민문제로 메르켈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기사연 당대표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역시 그러했다. 다만 그는 더블린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한번 난민신청을 한 난민을 거르기 위해 독일 국경 밖 여러 곳에 통관센터를 만들고, 이미 들어 온 자들 중 이 규정에 위배되는 자는 ‘첫 도착지’로 다시 귀환시켜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연정에서 기사연이 탈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압박을 가했다. 물론 이것이 곧 있을 지방선거에서 대안당의 약진을 막는 승리전략이었다. 메르켈 총리 혼자서 이 결정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주변국들의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졌고, 긴 마라톤 회의를 거쳐 어렵사리 합의를 도출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명분일 뿐이었다. 즉각적인 추방도, 국경 밖 통관 센터 건설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와 난민과 같은 트랜스내셔널한 사안들에 대한 즉각적 처리에 있어 기성정당들의 한계만이 드러낸 셈이었다. 제호퍼는 2018년 바이에른주 선거에서 당의 패배와 대안당의 약진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기사연은 37,2% 지지를 받았는데, 이 지지율은 이전 선거 결과와 비교해 10,5% 감소한 수치였다. 대안당은 10,2%라는 높은 지지율을 획득했다. 시민당은 전 선거 결과보다 10,9% 감소한 9,2% 초라한 5등을 했다. 17,6%의 지지로 바이에른 주의 제 2당이 된 녹색당의 약진이 가장 눈에 띈다. 곧이어 치러진 헤센주 선거에서 메르켈 역시 당의 패배를 지켜봤다. 기민연은 이전에 비해 11,3% 감소한 27%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 연내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총리자리는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는 메르켈의 발표가 나온 것도 이 선거직후였다. 대안당은 여기서도 13,2%를 얻어 성공을 이어갔다. 극우세력의 약진에 대한 반동인지, ‘정치적 올바름’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녹색당의 성공이 여기서도 이어졌다. 19,8%를 얻어 시민당과

동물을 이루었다. 아직은 이른 판단일 수 있지만, 트랜스내셔널 전환 시대에 거대정당의 몰락과 군소정당의 약진이라는 정계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기성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기성정당들이 변화하기도 했고, 시대적 주제를 자기 것으로 만든 신생 정당들이 틈새를 비집고 독일 정당체계 안으로 들어와 안착하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만인을 위한 복지(Wohlstand für alle)”³⁶⁾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보수정당 기민연/기사연의 독주 속에서 시민당이 바트 고데스베르트 프로그램(1959년)을 발표하며 노동자정당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것 역시 소위 자본주의 황금기의 ‘민족적 복지국가’의 팽창이 가져왔던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물이었다. “평준화된 중산층사회(Nivellierte Mittelstandsgesellschaft)”³⁷⁾로 신화화 되기까지 했던 전후 복지국가의 광범위한 발전 속에서 ‘노동자 정체성’을 가진 소위 시민당의 ‘묻지마 지지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진보하는 근대화(Ongoing Modernization)의 신화가 깨어지고, ‘환경과 핵’이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요소로 불거졌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기성정당체제에 반하는 새로운 정당으로서 녹색당의 등장과 성공 역시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물이었다. 동독의 사통당(SED)의 후계자라는 비난 속에서 등장했던 독일 민주사회당(PDS)의 정치적 안착 역시 통일이 가져온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선 녹색당이나 사통당과 같이 독일 대안당이 기성 정치체계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곳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볼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등장과 성공(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오는 성공)이 독일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트랜스내셔널 전환기’가 초래한 사회적 불안과 불편, 낯섦과 이질감이

36)Ludwig Erhard, *Wohlstand für Alle*. 8. Auflage(Düsseldorf, 1964).

37)Helmut Schelsky, “Die Bedeutung des Schichtungsbegriffs für die Analyse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Gesellschaft”, Helmut Schelsky,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Gesammelte Aufsätze*(Düsseldorf/Köln, 1965), p. 332.

증대되면 될수록, 안정과 인정, 편안함과 익숙함에 대한 동경은 더욱 더 절실해진다. 난민위기 이전에 이미 가장 민감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자리한 이주와 난민의 문제는 독일역사에서 오래된 정체성 개념인 하이마트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키워드로 만들어버렸다. 물론 그것은 독일민족주의가 태동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재기되었던 물음을 다시금 불러왔다: “과연 독일인은 누구인가?”

독일 대안당은 과거 극단적 민족주의로까지 치우치게 만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 방식으로 찾으려 했다. 대안당 공동대표 가우란트의 연설에서도 보여지듯, 민족과 하이마트는 대안당 내 보수민족주의자들의 핵심 레토릭이 되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우리나라에 계속 들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개념을 고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적으로 단일한 민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족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은 태생, 전통, 문화적 공통점, 그리고 하이마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이마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역으로 하이마트를 빼앗길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할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이마트라는 오래된 정체성 개념을 가지고 위기 속의 독일인들과 독일을 구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얻기 원했다. 그것은 기성정치의 위선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찾는 각계각층의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다. 독일 대안당은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사회적 가면 뒤에 자리하는 독일의 민낯을 직시하는 하이마트 정치의 산실로 불리게 되었다. 기성정당들에서 들려나오는 이주와 난민에 대한 ‘입바른 소리들’에 진절머리 난 애국심으로 가득 찬 엘리트들과 사회적 루저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어루만지는 정체성정치, 더 정확히는 이미지정치가 그 핵심에 있었다: “우리나라, 우리 하이마트(Unser Land, unsere Heimat)”, “너의 나라를 다시 찾아와(Hol dir dein

Land zurück)”.³⁸⁾

그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민족과 하이마트는 나치과거로의 귀환을 의미했다. 가우란트의 신문기고에 등장하는 하이마트 역시 그러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신문에 기고한 그의 글은 히틀러가 베를린의 지멘스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행했던 연설과 너무나 닮아있다. 역사가들은 그 공통점을 쉽게 발견했다.³⁹⁾ 그가 하이마트와 연결고리 없는 자, 즉 하이마트 없는 자라고 비판하는 “세계화된 엘리트(die globalisierte Klasse)”는 히틀러가 말하는 “국제주의 도당들”과 맥을 같이 한다. 물론 히틀러에게서 그들은 유대인들이지만, 가우란트에게서는 그들은 국제기구와 언론, 대학, 기업 등에서 일하는 글로벌 엘리트들이다.

“세계화된 엘리트(die globalisierte Klasse)...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 유엔과 같은 기구, 언론, 대학, NGO, 재단, 정당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에 그들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들은 거의 대도시에서 거주하며,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직장변경으로 베를린에서 런던 혹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갈 때에도, 곳곳에서 비슷한 아파트, 집, 레스토랑, 가게, 사립학교를 발견하곤 한다. 이 부류는 사회적으로 자기를 끼로 모이지만, 문화적으로는 다양하다. 그 결과, 이 새로운 엘리트들은 각각의 하이마트와의 연결에서 약하다. 폐쇄적인 병렬사회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느낀다. 고향에 떨어지는 비가 그들을 젖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의 세계, 세계 공화국을 꿈꾼다. 이 부류는 아주 섹시하기에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회 여러 부분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⁴⁰⁾

38) “Der 9. Bundesparteitag der AfD startete mit einer fulminanten Rede”, AfD Kompakt(2018.6.30.), <https://afdkompakt.de/2018/06/30/der-9-bundesparteitag-der-afd-startete-mit-einer-fulminanten-rede/>

39) Wolfgang Benz, “Wie Gauland sich an Hitlers Rede anschmiegt”, *Der Tagesspiegel*(2018.10.10).

<https://www.tagesspiegel.de/wissen/analyse-des-historikers-wolfgang-benz-wie-gauland-sich-an-hitlers-rede-anschmiegt/23166272.html>

40) Alexander Gauland, “Warum muss es Populismus sein?”, *FAZ*(2018.10.6.).

<http://www.faz.net/2.1652/alexander-gauland-warum-muss-es-populismus-sein-15823206.html?premium>

“그것은 민족들을 서로 이간질하는 국제주의 도당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나 집이 될 수 있고, 어디도 집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성장의 원천인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베를린에 살다가, 내일은 브뤼셀, 모레는 파리, 그리고 다시 프라하나 빈, 또는 런던에 머물 수 있는 자들로 어디서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든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들을 따를 수 없습니다. 민족은 땅, 즉 하이마트, 민족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땅에, 노동자는 자신의 공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진다면, 어디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곳곳에서 위기가 도래하고 민족들이 생존을 위해 어렵게 싸우고 있는 시대에 그것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힘의 원천은 국제적인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이마트에 있습니다.”⁴¹⁾

독일 대안당의 연방 국회입성이 확정된 직후 열렸던 독일 통일 기념식 연설에서 독일 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meier)는 대안적 하이마트를 제시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하이마트는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독일 대안당과 과거 나치가 주장하는 피와 땅의 하이마트와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하이마트를 동경하는 사람은 과거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세계가 더 급변하게 돌아갈수록 하이마트에 대한 동경이 더욱 더 커집니다. 친숙하고, 가야할 바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믿고 판단할 수 있는 곳, 급변하는 세계에게 그런 장소를 찾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마트에 대한 동경이라는 주제를 우리와 남을 편 가르고, 피와 땅이라는 망상으로 하이마트를 채우려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나치는 피와 땅의 신화를 불러왔지만,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하이마트를 동경하는

41) Adolf Hitler zum Abschluß des großen Wahlkampfes für die deutsche Ehre und Gleichberechtigung am 10. November 1933 vor den Arbeitern der Siemens-Schuckert-Werke in Berlin-Spandau.
[https://de.metapedia.org/wiki/Quelle/_Rede_vom_10._November_1933_\(Adolf_Hitler\)](https://de.metapedia.org/wiki/Quelle/_Rede_vom_10._November_1933_(Adolf_Hitler))

것 -그것은 완전을, 느긋함을, 단결을, 특히 인정을 동경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한 동경을 민족주의자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이마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하이마트는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 비로소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묶어주고, 우리 생활세계들의 벽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독일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이해하고 이해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이마트입니다.”⁴²⁾

하이마트 정치의 필요성은 정치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하게 된 메르켈 4기 내각에서 하이마트부가 신설되었다. 이 신생 부처의 장은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관할하는 연방 내무부장관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가 겸임하고 있다. 메르켈의 우호적인 난민정책을 내부적으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극우와 보수 사이의 경계를 오락가락하는 기사연의 당수 제호퍼의 의도는 분명했다. 제한적 난민정책과 이주정책, 정체성 정치의 강화를 통해서 독일 대안당쪽으로 등을 돌린 유권자들을 다시 얻기 위함이었다. 물론 그의 선거전은 참패로 끝났다. 이와 달리 녹색당은 현재 상종가를 치고 있다. 극우주의 세력의 확대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녹색당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성정당에 대한 혐오를 가진 자들, 그럼에도 대안당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환경이라는 ‘자신들만의 테마’를 잃어 버렸지만, 훨씬 더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진 녹색당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녹색당은 ‘정치적 올바름’과 가장 연관 있는 정당이었다. 녹색당은 연방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시민당의 자리를 넘보거나 이미 그 자리를 차지 할 만큼 성장했다.⁴³⁾ 사실 하이마트는 독일 녹색당의 정강과는 거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녹색당은 하이마트라는 중요한 의제를 극우정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42)Frank-Walter Steimeier, *Festakt zum Tag der Deutschen Einheit*(2017.10.3.).

<http://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Frank-Walter-Steinmeier/Reden/2017/10/171003-TdDE-Rede-Mainz.html>

43)Benedict Neff, “«Der andere Blick»: Besorgte Bürger wählen AfD - oder die Grünen”, *Neue Zürcher Zeitung*(2018.10.5.).

<https://www.nzz.ch/meinung/der-andere-blick-besorgte-buerger-waehlen-afd-oder-die-gruenen-ld.1425940>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피와 땅에 근거한 오래된 하이마트 개념에 반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하이마트정치를 그들은 꿈꾸고 있다. 피와 땅에 근거한 닫힌 하이마트 대 혼종과 문화적 다양성 속에 근거한 열린 하이마트, 과연 트랜스내셔널 전환기 어떤 하이마트 개념이 더 생명력이 있을까?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지금처럼 극우정치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열려 있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치시대의 하이마트가 다시 소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하이마트는 밖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혐오와 폭력, 차별과 배제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극우정치가 맹위를 떨치면 떨칠수록, 그것을 막으려는 저항 역시 강해진다는 것을 독일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대구교육대학교, hboell@dnue.ac.kr

주제어(Key words):

극우정치(right-wing politics), 난민(Refugees), 독일 대안당 (AfD), 민족(Nation), 하이마트(Heimat).

(투고일: 2018. 5. 1, 심사일: 2018. 5. 5, 게재확정일: 2018. 11. 9)

<국문초록>

독일의 극우정치와 난민
- 독일 대안당과 ‘하이마트 정치’ -

이 용 일

이 글은 독일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는 대안당의 극우정치를 다룬다. 대안당은 독일연방공화국이 걸어왔던 근대화 길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물론 그 속에서 형성되었던 암묵적 사회합의라 할 수 있는 역사정치문화 역시 그들에게는 민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우둔한 근대화의 고철일 뿐이었다. 대안당의 보수민족주의자들은 권위적인 민족국가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피와 땅에 근거한 민족과 하이마트를 계속 소환하며 과거로의 회귀를 꾀했다. ‘트랜스내셔널 전환기’에 무기력한 기성정당들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과 분노가 대안당의 성공을 가져왔다. 물론 위험성을 내포한 극우정당의 성공에 대한 독일사회 내부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다.

<Abstract>

The Far-right Politics and Refugees: AfD and his Heimat
Politics

Lee, YongIl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se the right-wing politics of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 which have great success in the FRG. The conservative-national wing of AfD rejected the economic and political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FRG. They considered the historical-political culture to be a scrap of the past, which paralyzed the people. The conservative-national wing within the AfD had a great appetite for an authoritarian nation-state that could be able to solve all current problems. Nation and Heimat were their battle concept, which was based on blood and soil. The great success of the AfD is due to the powerlessness of the old parties and the disappointment and anger of the bourgeois middle in the transnational turn. However, there is also a social resistance against the spread of right-wing politics in Germany.

참 고 문 헌

1. 자료

“2015 kamen 890.000 Flüchtlinge nach Deutschland”, Spiegel Online(2016.09.3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luechtlinge-2015-kamen-890-000-schutzsuchende-nach-deutschland-a-1114739.html>

Adolf Hitler zum Abschluß des großen Wahlkampfes für die deutsche Ehre und Gleichberechtigung am 10. November 1933 vor den Arbeitern der Siemens-Schuckert-Werke in Berlin-Spandau. [https://de.metapedia.org/wiki/Quelle/_Rede_vom_10._November_1933_\(Adolf_Hitler\)](https://de.metapedia.org/wiki/Quelle/_Rede_vom_10._November_1933_(Adolf_Hitler))

AfD, Erfurter Resolution. <https://www.derfluegel.de/erfurterresolution.pdf>

Benz, Wolfgang, “Wie Gauland sich an Hitlers Rede anschmiegt”, *Der Tagesspiegel*(2018.10.10). <https://www.tagesspiegel.de/wissen/analyse-des-historikers-wolfgang-benz-wie-gauland-sich-an-hitlers-rede-anschmiegt/23166272.html>

“Der 9. Bundesparteitag der AfD startete mit einer fulminanten Rede”, AfD Kompakt(2018.6.30.). <https://afdkompakt.de/2018/06/30/der-9-bundesparteitag-der-afd-startete-mit-einer-fulminanten-rede/>

“Höcke-Rede im Wortlaut. >>Gemütszustand eines total besiegten Volkes<<”, *Der Tagesspiegel*(2017.1.17.).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hoecke-rede-im-wortlaut-gemuetszustand-eines-total-besiegten-volkes/19273518.html>

Gauland, Alexander, “Warum muss es Populismus sein?”, FAZ(2018.10.6.). <http://www.faz.net/2.1652/alexander-gauland-warum-muss-es-populismus-sein-15823206.html?premium>

Kemper, Andreas, “Den >>Kampf um die Sprache gewinnen<< Zur NS-Rhetorik des AfD-Politikers Björn Höcke”, *Zeitgeschichte*

- online*(2017.4.1.). <https://zeitgeschichte-online.de/kommentar/den-kampf-um-die-sprache-gewinnen>
- Neff, Benedict, “«Der andere Blick»: Besorgte Bürger wählen AfD – oder die Grünen”, *Neue Zürcher Zeitung*(2018.10.5.). <https://www.nzz.ch/meinung/der-andere-blick-besorgte-buerger-waehlen-afd-oder-die-gruenen-ld.1425940>
- Resolution des Verbandes der Historiker und Historikerinnen Deutschlands zu gegenwärtigen Gefährdungen der Demokratie(Münster, 2018.9.27). <https://www.historikerverband.de/verband/stellungnahmen/resolution-zu-gegenwaertigen-gefaehrungen-der-demokratie.html>
- Rede von Prof. Dr. Bernd Lucke auf dem Gründungsparteitag in Berlin(2013.4.14.). <https://deutsche-wirtschafts-nachrichten.de/wp-content/uploads/2013/04/Rede-Bernd-Lucke.pdf>
- Sabrow, Martin, “Höcke und Wir”, *Zeitgeschichte-online*(2017.1).
- Stein, Timo, “Interview: Eurokritiker Lucke >>Wir lehnen Ausländerfeindlichkeit ab<<”, *Cicero*(2013.4.8.).
- Steimeier, Frank-Walter, *Festakt zum Tag der Deutschen Einheit*(2017.10.3.).<http://www.bundespraesident.de/SharedDocs/Reden/DE/Frank-Walter-Steinmeier/Reden/2017/10/171003-TdDE-Rede-Mainz.html>

2. 단행본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17. 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Nürnberg, 2018).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 Zentrale Ergebnisse*(Nürnberg, 2016).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Migrationsbericht 2015*(Nürnberg, 2016).
- DGB, *Die AfD: Auf dem Weg in einen völkisch-autoritären Populismus. Eine Zwischenbilanz vor der Bundestagswahl*

2017(Berlin, 2017).

Erhard, Ludwig, Wohlstand für Alle. 8. Auflage(Düsseldorf, 1964).

Sarrazin, Thilo, *Deutschland schafft sich ab. Wie wir unser Land aufs Spiel setzen*(München, 2010).

_____, *Der neue Tugendterror. Über die Grenzen der Meinungsfreiheit in Deutschland*(München, 2014).

Weiß, Volker, *Die autoritäre Revolte. Die Neue Rechte und der Untergang des Abendlands*(Stuttgart, 2017).

Wildt, Michael, *Volk, Volksgemeinschaft, AfD*(Hamburg,2017).

3. 논문

Berling, Carl C.,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 Germany’s New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y”, *Ifo DICE Report*, vol. 15(2017/4).

Bornschiefer, Simon, “Why a Right-Wing Populist Party Emerged in France but not in Germany: Cleavages and Actors in the Formation of a New Cultural Divide”,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2012).

Lachmann, Günther, “Anti-Euro-Partei geißelt die Politik der Kanzlerin”, *Die Welt*(2013.3.3.).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012).
<https://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14091447/Anti-Euro-Partei-geisselt-die-Politik-der-Kanzlerin.html>

Philipp Gassert, “Philipp Gassert, “Die Bundesrepublik, Europa und der Westen. Zu Verwerstlichung, Demokratisierung und einigen komparatischen Defiziten der zeithistorischen Forschung,” Jörg Baberowski/Eckart Conze/Philipp Gassert/Martin Sabrow ed., *Geschoichte ist immer Gegenwart. Vier Thesen zur Zeitgeschichte*(München, 2001).

Plehwe, Diet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Europäische und transatlantische Dimensionen des neuen Rechtsliberalismus”, Alexander Häusler ed., *Die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Programmatik, Entwicklung und politische Verortung(Wiesbaden, 2016).

Schelsky, Helmut, “Die Bedeutung des Schichtungsbegriffs für die Analyse der gegenwärtigen deutschen Gesellschaft”, Helmut Schelsky, *Auf der Suche nach Wirklichkeit. Gesammelte Aufsätze*(Düsseldorf/Köln, 1965).

Schmitt-Beck, Rüdiger, “Euro-Kritik, Wirtschaftspessimismus und Einwanderungsskepsis: Hintergründe des Beinah-Wahlerfolges der Alternative für Deutschland(AfD) bei der Bundestagswahl 2013”, *Zeitschrift für Parlamentsfragen*, Heft 1(2014).